

전주, 글로벌 투자 협력 중심지로 육성한다

국민연금공단-블랙록,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전북 혁신도시 본부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전 자산군을 아우르는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식, 채권, 멀티에셋, 대체투자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자산군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전사적 파트너십으로, 양 기관의 협력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88년 설립된 블랙록은 약 14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국민연금과는 2007년부터 위탁운용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블랙록 공동창립자인 로버트 카피토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글로벌 거시경제와 시장 동향, 자산배분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식 교류를 추진하고 투자 인프라 및 플랫폼 관련 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 체결과 함께 전주시 만성동에 '블랙록 전주사무소'가 개소되면서, 양 기관 간 상시 소통과 협력을 위한 거점이 마련됐다. 전주사무소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전략적 교류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를 글로벌 투자 협력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주가 투자와 혁신을 논의하는 글로벌 관문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전북 혁신도시 본부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전 자산군을 아우르는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성농업인안전·실무 역량강화

농촌진흥청, 내달 24일까지 농기계 챌린지 참가자 모집

농촌진흥청은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활용 능력 향상과 안전한 농작업 문화 확산을 위해 '제2회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 참가자를 오는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농기계 운용 능력을 높여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에 거주하며 농기계 운용이 가능한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총 30팀 120명 규모로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거주지 인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각 기관 추천과 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자가 확정된다.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시·도별 및 유관기관 추천을 포함한 방식으로 선발이 진행된다. /오상근 기자

대회는 오는 9월 9일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열리며, 참가자들은 밭 만들기, 옥수수 농작업 농기계 챌린지 참가자를 오는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농촌에 거주하며 농기계 운용이 가능한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총 30팀 120명 규모로 선발한다.

정명갑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이번 대회가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 협력

전북은행-유비온,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은행이 에듀테크 기업 유비온과 손잡고 외국인 고객을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수원의외국인금융센터는 23일 유비온과 외국인 대상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증가에 대응해 입국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 예비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마케팅을 비롯해 입국 초기 계좌 개설 지원, 외국인금융센터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 대학 및 통사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육과 생활, 금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유비온은 150여 개 대학의 학습경험 플랫폼(LXP)을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외국인 대상 교육·생활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외국인금융센터를 통해 다양한 국가 출신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고객 접점을 넓히고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20일 전북지원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공익직불제 운영 강화를 위한 광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30일~4월 17일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4일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성장 잠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 이후 전국 17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특구는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접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 특구를 선정해 지원하며, 특구 발전 전략

수립부터 재정사업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 기획자, 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이 현장까지 직접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상권 육성사업,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사업 등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 확대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신청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기반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결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확대됐다. 우선 신용평점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돼 NICE 신용평점 595점에서 964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고, 업력 요건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한 기존 유사 보증상품 이용자도 한도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오상근 기자

카드 사용처도 넓어졌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통한 전기요금 결제가 가능해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의류·잡화 등 도소매 업종 관련 사용처도 추가됐다.

기존 혜택인 6개월 무이자 할부와 연회비 면제는 유지되며, 신규 이용자는 보증료를 부담하는 대신 최대 5년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 승인 이후 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카드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향후에는 카드 발급 신청도 모바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 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경영 안정과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공익직불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전북농관원·전북자치도, 광역협의회 갖고 협력 강화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20일 전북지원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공익직불제 운영 강화를 위한 광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농관원 사무소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공익직불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직불금 신청 홍보 방안과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사례 등이 공유됐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특히 농관원과 지자체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액 없이 직불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울러 실경작자 중심의 직불금 지급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협조 체계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한종현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